

제주시 농업의 1·3차 연계방안

강 지 용, 강 승 진*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정보과*

The Plan for Connection of Primary and Service Industry in Jeju City

Ji Yong Kang, Seung Jin Kang*

Dept. of Agriculture & Resource Economics, Ch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Information Cheju Tourism College*

1. 서 론

제주시의 위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을 연결하는 동지나해의 북부항로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내륙을 향한 한반도의 출발지이자 제주도(島)의 북안(北岸) 중앙에 자리한 제주도에서는 물론 세계화의 중심도시이다. 제주도의 북부중앙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조천읍, 서쪽으로는 애월읍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라산까지 이르고 있어 한라산을 따라 군소산악이 있어 풍부한 목초지와 농경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해안에 이를수록 점차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 중턱으로 관통되는 여러 도로들로 인하여 국제자유도시 역할의 중심지역이다.

제주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이 7.7%, 2차산업이 3.5%, 3차산업이 88.8%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총생산면에서는 1차산업이 10%, 2차산업이 4%, 3차산업의 86%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2016. 제주 시비전과 발전전략)을 알 수 있다. 1차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는 지나치게 1차 산업에 의존함으로써, 소득의 증대나 고용의 창출에 있어서 다같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¹⁾. 특히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농가경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의 정체, 부채의 누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촌공동화, 도시과밀화라는 새로운 사회·정치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²⁾. 따라서 제주시지역의 농촌경제 한계성을 극복하고 도·농간의 균등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차원의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획기적인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자원의 활용을 1차산업적인 것에 국한시켜 온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과 연계시키는 다원화의 노력이 필요한³⁾ 실정이며 제주시 1차산업의 주요자원인 농림수산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1·3차 연계산업 도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하다⁴⁾.

- 1) 강승진, "제주지역농업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
- 2)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 "제주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농원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농업기술센터, 1999, p.13.

Corresponding Author : Ji Yong Kang, Dept. of Agriculture & Resource Economics, Cheju National University
Tel : 064-754-3352, E-mail : citrus21@cheju.ac.kr.

* 본 연구는 2002년도 제주시의 지원금에 의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제주시 농업의 발전전략」 용역보고서(연구책임자 강지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우리나라의 농외소득정책

가. '90년대 이전의 농외소득정책³⁾

'60~'70년대에는 농촌의 잠재실업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마을 공장 건설과 농어촌부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농촌유휴인력을 생산화하고 부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더구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지시수준을 억제시켜야 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부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농어촌생산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집단입지개발과 외부기업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1983년 12월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제정되었고 이 법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농어촌부업단지 육성, 관광농원사업이 포함되었다. 관광농원은 초창기에는 농산물직매농원을 위주로 개발되어 오다가 임대농원, 종합관광농원, 아동자연학습농원, 휴식농원 등을 포함하는 관광농업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90년대 이후의 농외소득정책

농어촌관광 소득원을 개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관광농원만 개발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어촌특산단지와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 관광소득원 개발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12월에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

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7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이 포함되었다.

3. 농어촌휴양사업의 현황

가. 농어촌휴양사업의 종류

가) 관광농원

관광농원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농원운영의 주체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며,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이 되도록 하며,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하고, 농원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로 제공하여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다. 추진방향은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체육·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한다.

3) 강승진, "제주지역농업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

4) 강승진, "제주지역농업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

5) 유승우·김학중, "농촌관광개발의 이론과 추진실태," 관광농업학술발표자료, 한국관광농업학회, pp.254-255, 1998.

표 1. 제주시지역의 관광농원 현황.

관광농원	면적(km)	위치	재배작물	시설
오등 관광농원	2.48	오등동	감귤, 유자, 금감, 하귤, 궁내이에감	휴게실, 원두막, 간이쉼터, 주차장, 인공폭포, 물허벅여인상, 돌하르방 등
남양 관광농원	1.65	화북동	감귤, 참다래	원두막, 간이쉼터, 삼승할망,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등
노형 관광농원	1.49	노형동	감귤, 유자, 만감류, 복숭아, 사슴	원두막, 물허벅여인상, 설문대 할망, 오찰방, 자청비와 문도령, 연자방아 등
회천 관광농원	1.32	회천동	감귤, 유자, 단감	
신미 관광농원	1.88	도평동	감귤	원두막, 휴게실, 분수대, 정자, 민구규 등

표 2. 제주시지역의 농어촌휴양단지 현황.

휴양목장	위치	시설
명도암 관광휴양목장	봉개동	승마장, 방갈로, 네덜란드식 풍차, 레스토랑, 커피하우스, 유리온실, 자연학습장
회천 관광타운 카라비안	회천동	농원여관, 방갈로, 식당, 야외공연장, 주차장, 민속찻집

표 3. 제주시지역의 민박마을 현황.

민박	이호 해수욕장지구 민박	용두암지구 민박	일반 민박
위치	이호동	용담2동	제주시 일원
참여 가구	총 20가구 73실	총 13가구 44실	총 54가구 237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방향은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한다.

라) 민박마을 조성사업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관광지 등이 있어 민박수요가 있는 농촌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 교류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방향은 숙박위주의 민박마을 조성보다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하며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한 민박마을을 조성한다.

나. 제주시 지역의 농어촌휴양사업 현황과 문제점

가) 농어촌휴양사업 현황

○ 관광농원의 현황

제주시의 관광농원은 대부분 감귤을 재배하는 농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부대시설도 원두막과 동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영세한 실정이다.

○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제주시의 농어촌휴양단지는 명도암과 회천관광타운 2개소이며 방갈로 위주의 시설을 하고 있다.

○ 민박마을 조성사업

제주시의 민박지구는 이호와 용두암 지구 2개소가

있으며 이호는 20가구, 용두암지구는 1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시 일원에 총 54가구가 민박에 참여하고 있다.

나) 농어촌휴양사업의 문제점

투넨(Thunen)의 입지론이나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농통합도시의 출현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아직 외부적, 행정적 조치만 이루어졌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도농통합도시란 도시의 기능과 농촌의 기능이 상호 보완관계에서 역할을 분담할 때에 이상적 전원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주지역 등 용도별 기계적 분할에 의해 신도시를 창출해 낼 수 있으나 농촌지역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이 혼재되어 있어서 일반적 도시개발 기법과는 차이가 많다.

제주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농촌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전원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개인주택개발 등은 도농통합도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약삭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도시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 농촌재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의 도시기능을 살리고 그 힘이 제주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인들의 휴양공간이자 교류공간이며, 교육공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농촌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합농촌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지역입지별(산간지, 중산가지, 평야지, 해안지), 자원별(채소, 화훼, 과수, 축산 등), 유형별(체험학습형, 문화보존형, 자연휴양공간형 등) 특성화 개발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농어촌휴양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설투자, 휴양단지 조성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특성화 기법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IMF 위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부실사례가 발생하였

다. 또한 관광농원은 개인 경영형태의 숙박요식업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어촌휴양단지사업도 입지선정과 시설 등에서 지역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지역의 농어촌휴양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정이미지에 다양한 농수산특산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나 관광농원, 민박마을 편중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종합관광 농어업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풍부한 자연환경과 제주도의 관문으로서 왕래하는 관광객은 많지만 다양한 농어업 관광상품을 갖추지 못하여 관광객을 대부분 제주시이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 쉬터, 체험 등을 네크워크화하는 수용체계 미흡으로 농어업 소득향상에 기여치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관광농원이 감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생산의 산 교육장(체험) 및 전원을 즐기는 건전한 휴식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권장되기 시작한 민박이 가족단위의 관광패턴 변화와 펜션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업형으로 고급화되면서 전원형 이미지를 고려치 않은 도시형 숙박시설로 변질되면서 농어민의 농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농촌의 민박들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⁶⁾. 다섯째, 휴양단지도 제주 전통의 말싸움과 같은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네덜란드 풍차와 코끼리 쇼와 같은 이국적인 문화를 보여줌으로 인해 농어촌휴양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1·3차산업 연계는 지역산업과 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유인요소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농업(6차산업)이 도입된 농촌관광(Green Tourism)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한국일보, 2001년 10월 31일, 사설.

4. 제주시지역의 1차·3차산업 연계방안

가. Green Tourism의 개념

국민소득의 증대와 교통의 발달,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국민관광시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관광수요자는 혼잡한 관광지보다는 가족단위로 조용하고, 쾌적한 공기와 수변 등의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⁷⁾. 또한 농촌관광(Green Tourism)⁸⁾은 앞으로 실시되는 주 5일 수업제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완전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도시인 제주시의 새로운 관광정책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관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휴양, 그리고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농산물 판매(1차)와 가공·특산물 생산(2차), 관광·음식물 판매(3차)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1년부터 농림부⁹⁾는

7) E. Mayo, Tourism and the National Park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4, No.1., 1975.

8) 유럽에서는 그린 투어리즘과 유사한 용어가 각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EU에서는 관광부분에서는 전원관광(Rural Tourism), 농정부분에서는 농업관광(Agrotourism)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연구서에서는 전원관광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농림성의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 중간보고서에서 그린 투어리즘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며 1994년 일명 "그린 투어리즘법"인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촉진법」에서 공식적인 행정용어로서 사용하여 농촌관광을 그린투어리즘으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일본의 농촌관광을 그린 투어리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김범수, "Green Tourism과 지역활성화," 한국관광농업학회·한국산림휴양학회 공동학술대회, 1999, p.48, p.55.

9) 농림부는 2001년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부터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 투어리즘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마을로서 「녹색여가·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생활·여가시설과 마을 경관을 정비

농촌관광을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급격한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도시화로 농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응한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 정주민구감소에 따른 역사회의 쇠퇴를 도농교류 확대와 유동인구 증대로 극복하고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와 농업과 공업, 관광·서비스업을 연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나. 농촌관광의 특성화 육성방안

가) 육성지침

농촌의 자연에서 즐겁게 놀면서 생활을 체험, 학습하며 몸과 마음을 재창조 할 수 있는 장기 체재형으로 육성하고 년중 재방문하면서 휴과 자연환경 속에서 향토요리와 토종농산물의 맛을 즐기는 단지 체재형으로 육성한다. 또한 신선한 농산물의 생산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형으로 육성한다.

나) 육성방안

- 기존 관광마을의 성장형 - 기존관광 단지에 접하여 형성된 마을의 농림업 등에 체험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 공공시설의 활용형- 환경 및 농림어업 관련 시설(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장, 대규모 농장단지, 농산물 가공공장 등)들의 재활용 방안 및 정비를 통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단체들과 지역 농림업을 연계 육성한다.

- 신농촌관광형(명소만들기) - 마을별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1-2개소를 정비하여 책임 육성한다.

- 제 3섹터 방식의 주민주도형 방법을 도입 - 지역에서는 향토요리의 개발, 민박, 식재료의 제공, 단체 급식 및 개인취사, 저비용 휴식장소(오토캠핑장

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한편, 2001년 하반기 중 「도시농촌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그린 투어리즘 붐 조성. <http://www.maf.go.kr>

등)의 준비에 노력한다.

○ 매력있는 농촌관광마을 조성(명소만들기) - 쾌적하고 매력있는 농촌마을이란 교류시설과 상징성 있는 심벌을 핵심으로 전통문화와 역사, 환경 농산물과 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활기있는 장소로 육성한다.

다) 육성형태

지역여건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성있는 차별화된 농촌관광마을의 개발을 유도한다.

○ 입지별

- 산간지형 : 산간계곡과 오름, 고원지대의 깨끗한 맑은 물과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산촌마을(예: 건강한 휴양마을, 노루마을, 버섯마을)

- 중산간지형 : 임야와 전답이 혼재한 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이용한 중산간 마을(예: 건강휴양마을, 목장마을, 실버마을, 효도마을)

- 평야지형 :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이용한 영농체험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마을(예: 감귤마을, 주말농장, 꽃마을, 토종돼지마을)

- 해안지형 : 하천이나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어업형 마을(예: 어촌박물관마을, 하천마을, 휘싱파크)

○ 유형별

- 문화체험형 : 김치마을, 향토체험형 마을, 민속체험형 마을, 귀양마을

- 농촌생활체험형 : 영농체험마을, 생활체험마을, 예절체험마을

- 자연체험형 : 생태마을, 곤충마을

○ 자원별

- 원예(과수, 화훼, 채소)형 : 환경농산물 생산마을, 꽃마을, 감귤마을, 원예랜드, 유기농마을

- 축산형 : 관광목장마을, 한우마을, 토종돼지마을, 노루마을, 꿩마을

- 임업형 : 산채마을, 버섯마을, 산촌휴양림

- 어업형 : 관광어촌마을, 워터쇼, 어촌박물관, 휘싱파크

라) 자연생태계농업(유기농업) 육성

○ 자연생태계를 살려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설정

○ 자연생태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작성

- 조례의 목표 : 농업의 안정생산 및 장기적 진흥(흙살리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소비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의 확보(안전한 식품, 건강, 살기 좋은 환경의 유지 등).

- 조례내용

: 시민 - 자연생태계농업 추진 정책에 협조 : 소비촉진.

생산자 - 자연생태농업의 실천자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

검사제도 - 농지검사, 생산물검사, 등급제 도입.

다. 농촌관광과 관련사업간 연계체계 구축

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반정비

○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학생·학부모 대상 자연생태 및 농업·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 노인복지센터, 양로원 등 실버산업시설 유치에 활용될 수 있는 도시노인의 체류형 휴양·여가프로그램

-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 외국인 대상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선도관광모델로 개발

○ 농업인·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경영메뉴얼 개발

- 농촌관광 국내외 실천사례, 정부·지자체 사업·시책 및 금융·세제 활용, 경영기법과 리더십, 마을·지역경영 등

○ 소규모 가공·판매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측면지원 프로그램 확충

- 전통식품류 외에 소비성향변화를 고려하여 원예·축산가공에 역점을 둔 가공·판매사업 분야 및 사업아이템 개발·확충

- 부녀층을 비롯, 농업인에 대해 농축산물 가공법, 다양한 향토음식 등 가공·판매교육프로그램 확충

○ 전문인력육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농촌관광 리더 육성

- 가이드 : 지역안내, 여가·체험메뉴구성에서 안전관리

- 기획가 : 가이드 + 지역계획, 지역내 조성, 컨센서스 유도

- 지역경영컨설턴트 : 농가·마을·지역계획의 수립, 타당성 분석, 지도·조인, 마케팅, 경영관리, 정부시책과 금융·세제 활용지도

- 제주시의 외국어 가능한 봉사요원을 외국인을 위한 웰컴 자원봉사자로 등록·관리

나) 하드웨어 기반정비

○ 농촌관광 추진거점으로 「녹색여가·체험마을」을 시범마을로 조성

- 농촌관광을 추진하려는 자연마을에 대해 마을정비, 사업추진방법, 주민역할분담, 사업수익모델 등이 완비된 다양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사업방향을 제시

- 생활기반시설과 여가·체험 기반시설, 경관조성 지원

○ 민박마을 지원 (펜션업)

- 현재 개별농가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을 정비하고 마을단위의 사업추진체계와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녹색여가·체험마을로 유도

- 문화마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의 주택개량사업 수준으로 지원

- 5호 이상 농가가 신청한 마을을 지원

- 향후 녹색여가·체험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인력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강화

- 마을 단위 사업방식이 정착되면서 일반관광지민박지원은 지양

○ 관광농원 전환

- 현재의 관광농원을 휴양농원, 체험농원으로 보완·발전

- 개별경영방식, 지역이나 농업과의 괴리 등 문제점을 지양하고 마을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농업·농촌체험, 지역안내 등 농촌관광의 추진주체로 발전유도

- 일반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해 마을과 연계하여 녹색여가·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관광농원은 농촌휴양농원, 농업·농촌체험농원으로 별도의 명칭 사용 허용

- 관광농원, 휴양농원, 체험농원, 민박마을 등을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성

○ 농어촌휴양단지

- 기존 단지의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사업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임.

- 향후 마을단위 농촌관광 추진을 기반으로 복수의 마을권역을 연계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 마을단위로 배양된 지역주민의 경험과 경영·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반영

- 지자체 등이 개발하여 마을이나 농업인·지역주민의 사업그룹에 장기임대하고 홍보·마케팅 등 측면 지원

라. 농어촌계획 재정립

가) 문화마을 조성

○ 현대식 전원문화주택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수요를 존중하되 자연경관과 전통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 농촌전통마을, 친환경 자연생태마을 등 다양한 테마의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주시의 자율적 사업추진 유도

- 농촌전통마을 : 마을 고유의 테마를 중심으로 전통적 마을환경, 문화, 생활풍습 및 농·특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등을 결합한 마을 조성

- 친환경 자연생태마을 : 친환경농업지역, 특별한 자연생태계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체험,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마을로 조성

- 신규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

나) 가공·판매사업 육성

○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지역

주민의 취업 및 소규모 사업 창업기회를 확대하여 소득확보에 기여

- 농촌관광 활성화에 따른 도시민 방문객 증가를 소득증가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업규모 가공·판매사업 확충 필요

- 부녀층 등 개별농가, 농가간 제휴, 마을단위의 창업 촉진

- 가공품의 판매보다 농촌 방문자들에 대한 농축산물 가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도 활용

- 중장기적으로 농가·마을단위사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테마파크형 특산가공단지로 발전유도

마.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정비

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등 수요층과 농촌관광 추진 농가·마을간의 원활한 정보흐름 확보

- 농촌방문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상세하고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 농가에게 도시민의 요구·요망사항, 사업관련 정보 전달

나) 농(農)·소(消)·정(政) 협력사업의 개편·확충

○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농촌관광의 분위기 형성 및 추진체계 강화로 연결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사업화 가능한 분야와 수요층을 발굴하여 농촌관광의 사업내용 다변화와 수요창출에 기여

- 농촌관광 마을·지역과 협력사업 참가단체 등으로 지역별 협의체계 구축 등 농촌관광 추진체계 강화

다) 농가 소규모 가공·판매업 창업보육센터 창립

○ 부녀층을 비롯한 농업인의 가공·판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등 창업준비, 교육, 기술 및 경영지

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농가·마을의 창업촉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농촌진흥법에 의거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술·경영전문인력 풀과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5. 결론

제주시지역에서 1·3차 산업을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복합적 기능을 가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단지'를 조성한다. 매력있는 제주시 농어촌 명소 만들기 위하여 아라동 지역 중심으로 과일과 채소 특화지역을 조성한다. 탐동, 해안도로 등과 연계한 '추억만들기' 명소를 조성, 지원한다. 화북, 삼양 지역을 해너마을로 선정하고 수산물 시식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문화 체험장으로 연계시킨다.
2. 제주시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 일정량을 시내의 급식시설에 제공함으로써 환경농산물생산으로 제주시 환경을 보전하고 유기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한다.
3. 국제공항 시설과 연계한 1차 상품 소비·홍보방안을 모색한다. 공항내 착즙기를 설치하여 내방객이 직접 1차상품을 착즙, 이용할 수 있게 하여 1차상품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한다.
4. 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장, 대·소규모 농장, 농산물가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림·어업 연계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5. 농촌 펜션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개별 농가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을 정비하고 마을단위의 사업추진체계와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녹색여가·체험마을로 발전시킨다.